

웨일 스페이스 활용 '전북형 교수학습플랫폼' 시범 운영

도교육청 - 네이버클라우드 '맞손'

미래교육 협력 체계 마련 거버넌스 구축 힘 모으기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5층 접견실에서 네이버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웨일 스페이스 기반 전북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네이버클라우드의 웨일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북형 교수학습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제공 교육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 및 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는 웨일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북형 교수학습플랫폼 초기 구축을 지원하고, 웨일북 수업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설명회 참여, 협의체 구성 등 안정적인 미래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더불어 하이퍼



23일 전북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기반 미래교육과 관련된 협약식이 열렸다

클러버 등 교육적 활용 가능한 신기술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미래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내외 교육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습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제공 협력을 통해 교

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웨일 스페이스 기반 전북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구글코리아와의 간담회 및 이달 19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과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23일 제주교육청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사진은 실무협의회 정기회 모습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제주 등과 특별법 개정 대응

전북·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발족... 내달 중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23일 제주교육청에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발족했다.

전북·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특별법 관련 부서장과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실

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2024 공동 추진 발굴과제와 향후 사업내용 등을 논의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향후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네팔 최초 기술경영과정 개설

전북대, 코이카 사업 통해 네팔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지원하는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온 전북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네팔 최초의 기술경영(MoT)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히말리야 호텔에서 황인호 사업단장과 네팔 교육부 Ms Pramila Devi Bajracharya 차관, 코이카(KOICA), KU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갖고 3년 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2018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수행했다. 코이카로부터 32억 원의 지원을 받아 네팔 카트만두 대학 기술혁신센터인 NTIC를 설립하고, 에너지, 보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7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소수종교 교수(약대 약학과)와 R&BD를 담당하고, △장우석 교수(자연대 분자생물학과)는 기자재시험·분석, △김진수 교수(신학협력단)는 학교기업, △김승운 교수(상대 경영학과)는 창업보육, △선종화 교수(상대 경영학과)는 교육훈련, △김대혁 교수(자연대 생물과학부)는 Tech DB 및 네트워크, 사업 성과관리는 △문경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가 참여했다. 여기에 서울대 김흥기 교수(대학원 치 의과학과)가 스마트헬스 분야에 참



전북대는 지난 19일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히말리야호텔에서 황인호 사업단장과 네팔 교육부 Ms Pramila Devi Bajracharya 차관, 코이카(KOICA), KU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보고회를 갖고 3년 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여하는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했다.

특히, 사업 초기 코로나 팬데믹과 짧은 사업 기간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R&BD 프로그램으로 총 28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11건의 논문 출판과 8건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기자재시험/분석 프로그램으로 카트만두대학 기술혁신센터인 NTIC 건물에 약 82만 달러를 투자해 55종의 핵심 기자재를 설치하고, 최근 오스트리아로부터 인증을 받아 공인된 시험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더불어, 학교기업 프로그램으로 카트만두 대학교 브랜드를 활용한 프리미엄 생수를 판매하기 시작했

고,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및 천연 수소가스 기업을 설립해 8명의 고용창출과 3개의 제품을 상용화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는 16개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통해 현재까지 총 9개의 시제품 개발과, 17건의 신규고용을 창출, 7,200달러의 매출 성과를 냈다.

황인호 전북대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기술혁신역량을 네팔과 공유해 기술혁신센터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의 통합적 발전 기여를 위한 기쁨을 확인했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향후 기술혁신센터가 네팔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야생조류 매개 감염병 조기 탐지 기술 확보

전북대 표와이원 박사과정생 아시아보건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표와이원 박사과정생(지도교수 한재익)이 최근 열린 제16회 아시아보건학회(구 아시아 야생동물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표와이원 박사과정생은 조류 호흡기 병원체 동시진단 패널 확립과 현장에서의 적용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야생조류에 의해 매개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농장 동물감염병 병원체 12종을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기법을 확립, 이를 현장 시료에 적용해 평가한 것으로, 향후 국내 야생조류의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와이원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로 12종의 병원체를 보다 신속하게 검출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기법을 확립했다"며 "이는 국내 야생동물 감염병 감시 체계 구성을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도내 초등생 대상 중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

우석대학교 공지아카데미는 지난 21일 우석빌딩 2층 화하관(華夏館)에서 제10회 전북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명의 초등학생이 중국 관련 자유주제로 3분씩 중국어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임혜연(군산동초 6년) 학생이 대상, 임라임(삼례중앙초 6년)·양재운(군산경포초 4년) 학생이 은상을, 최윤정(봉동초 4년)·이하을(한들초 5년)·박세은(한들초 5년) 학생이 동상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안철희(군산 차이나 중국어학원) 선생이 최우수 지도 교사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저탄소 채식급식으로 학생 건강 증진

도교육청, 레시피 공모전... 11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저탄소 채식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저탄소 및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전북교육청의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응모 주제는 '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채식)식단'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맛있는 저탄소(채식)식단 △내편의 비법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저탄소(채식)식단 △우리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저탄소(채식)식단 등이다.

공모전에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전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학교급식 관계자는 식판 사진 1장과 조리과정 사진 4장 등 총 5장의 사진과 레시피를, 또 교직원·학생·학부모·도민은 완성된 요리사진 1장과 조리과정 사진 2장 이상과 레시피를 이메일(yumi166@jndu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 장려상 3명(팀), 참가상 30명(팀)을 선정해 교육감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레시피는 '저탄소 환경급식 레시피 자료집'에 수록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해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시기 문예체재강화과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저탄소 환경급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채식식단 활성화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저탄소 및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그린캠퍼스 챌린지' 진행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학 캠퍼스 내에서 '그린캠퍼스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2023년도 실행 의제로 선정된 민간 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하나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이 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전주대학교 내 학생회관, 스타센터, 스타타워, 공학 2관, 예술관 등에서 총 8개의 종이 팩 수거함을 설치, 1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해 수거함 관리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23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 의제 실행기관인 전주지속가



능발전협의회에서는 '민간 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전주교원빌딩 등 종교기관을 민간 거점으로 확보해 재활용폐기물 모으기, 영유아 교육기관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 및 종이 팩 모으기 실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동승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이 공공영역에서 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참여 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민간 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이를 지속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 30명 배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1일 제7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2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론과 실기평가를 통과한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전주기전대학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2017년 산림청의 인가를 받아 7년째 운영 중으로 본교에서 배출된 유아숲지도사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숲과 연계된 생태교육 전문가 역할을 맡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학술림 활용 숲체험 '호응'

최근까지 463명 참여

전북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술림을 활용한 숲체험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지역이동센터, 노인회 장애인복지관 등의 계층을 대상으로 덕진학술림(간지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최근까지 463명이 참여했다.

전북대학교의 풍부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숲 생태계 연결성을 깨닫게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이창원 전북대 학술림장(산림환경과



학과 교수)은 "숲체험 교육을 통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더불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는 2018년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체험 교육 사업에 선정,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숲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